

생활은 살아 있으니
몸이 활동 한다는 것이다.

생활방식

生 活 方 式

KIM CHUL

생활방식

生活方式

목차

01	경상방식	輕常方式	9
02	활심방식	活心方式	14
03	독생방식	獨生方式	21
04	역체방식	力體方式	26
05	재현방식	在現方式	31
06	거처방식	去處方式	36
07	일상방식	日常方式	42

목차

08	계수방식	計壽方式	49
09	활인방식	活人方式	55
10	접촉방식	接觸方式	61

서문

생활은 살아 있으니
몸이 활동 한다는 것이다.
살아서 움직임이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활동을 한다. 특별히 경제 활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필수불가결 생활법이다.

일상생활, 가정생활, 회사생활등으로 표현 되는 생활은 누군가의 매일이다. 여기에 형용사들이 붙으면 누군가의 생활의 상태나 방식 그리고 바람이 드러난다.

행복한 생활, 건강한 생활, 화목한 생활, 풍부한 생활, 성공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은 생활과는 일평생 거의 같지 않다. 그 실제 상태와 현실에서.

자신에게 좋은 상황을 소유하고 구축하는 방식으로 제 각각 각고의 노력을 하며 생활을 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좋은 상황은 인생 현장에서는 목표와 소망, 희망과 바람이 담긴 생활과 일절 관계가 없다.

어떠한 생활을 살고 싶다고 바란다고 기다린다고 노력한다고 실황은 거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도 없는 '사-'에서 오랜 시간 어떻게 '사는, 살아 있는'의 의미로 '살아 있는 인간'이 되었다.

순우리말인 '살이'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이라는 뜻과 같다. 사람이 산다. 사람살이. 이에 반해 형편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처하고 경험하게 되는 외부환경적 상태이다.

상호간의 관계 상태, 사회적 위치와 상태, 신체와 정신 건강의 상태, 경제적 상태. 모두가 전적으로 나 홀로가 아니다. 사회적, 공동체적 생애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생활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생활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서 자기 생활 상태에 대한 바람과 목표를 마음에 두는 것이다.

형편은 상태의 자궁이고 대지 大地 이다. 상황은 무상항변無常恒變하는 자연의 날씨(weather, 어원이 태풍, 폭풍)이다.

이제 세상 상황과 인간 삶의 형편의 기후대와 시대와 지형이 바뀌었다. 늘 그랬었듯이. 이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태어나 살고 생활한다. 이제 사회인들은 이 기본 형편의 거대 구름 아래서 죽음을 향해 살며 생활한다.

지금의 형편에서는 이전에 목표하고 소망하고 꿈 꾸고 바랐던 어떠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동시에 재해적인 현상 발생이 기본 일기日氣가 되어 있음으로.

물론 전지 全知 한 신이나 '슈퍼 AI도-초월한-초강력-AI-이후 것(Trans-AI-Ultra-AI After)'이 아닌 이상-아니 그들 역시도-, 절대로 형편과 상황의 그 출처와 정체와 행로를 알아낼 방법은 이전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없다.

이전에는 어떠한 영역이든 일이든 방법을 잘 알면 알 수록 더 나은 생활을 할 확률치가 높아졌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에는 어떤 영역이든 일이든 방법은 AI들이나 온갖 유사pseudo/반half 전문가들이 거의 다 알려 준다.

'Know-How'은 이제 비공개적, 세습적, 폐쇄적, 도제 제도적으로 전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 쳐도 이제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 많다.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Know-How'가 공개 자료가 되고, 내려 받을 수 있고, 자기 학습으로도 획득하여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방법은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No-How) 상태에서 생활방법의 저장소 폴더에 가득가득 'Know-How' 파일들의 용량을 늘려 간다. 세상의 모든 음악(KBS 라디오 FM 프로그램)의 표현처럼, 세상의 모든 방법이 매일 본방송에 재방송에 보이는 화면까지 방송 되고 있다.

생활방식은 살아 있어 움직이는 사람이 방법을 알고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적용하고 조합하고 만들어가고 실현하는지에 대한 원칙 原則 principle이 아닌 자기 원리原理fundamentals이다. 집에 꽃들을 많이 심어 봄, 여름, 초가을까지 형형색색 기쁨을 준다.

몇 명의 손님들에게 꽃들을 전지 가위로 꺾어 가지고 와서 화병에 혹은 침봉에 담아 보라고 한다. 모두 이 정도는 처음 작업 부터 도구까지 있고 담을 용기까지 있겠다, 전혀 막힘 없이 작업을 완료한다. 어떻게 꺾고, 꽃고, 담는지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담음새들의 풍風과 류流는 제 각각 이다. 아니 없고 있고 이다. 자기의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생활방법과 생활방식을 꼭 구분하려고 떼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방법은 해결과 성취, 획득과 소유가 그 존재의 이유이다. 방식은 해결과 성취를 목표하면서도 자기의 본성nature과 좋음(liking-애호, 취향, 취미, 몸의 상태, 건강)

을 알고 듣고 따름으로 일상살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금-여기-이 순간에 출석하고 있는 살아 움직임의 지금 일어나고 있음이다.

별들의 행로와 수명은 별들도 모른다.

세상의 형편과 상황은 세상도 모른다.

운명론이 아닌 순명 順命 에 관한 지혜이다. 사회와 공동체만의 온전한 산물이 아닌 그렇다고 순전히 혼자만도 아닌 이 세계 속의 나이다.

어떠한 생활을 원한다는 형용사 붙은 생활, 이를 이루기 위한 생활방법에 얽매여 모두 비슷한 살이가 아니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는 내 원래의 싶음과 함께 하는 독특한 일상의 깊이와 감사가 발생하는 생활방식이다.

경상방식

輕常方式

이제는 필리핀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인물이 된 필리핀 권투선수 매니 파퀴아오는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물어 보는 이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지쳤어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도 스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발뒤꿈치를 들고 가볍게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게 정말 별 것 아닌 듯 들리는데, 전문-프로-평생 복서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복싱 방식인가보다. 눈과 귀와 온 정신 그리고 팔과 주먹과 몸통, 힙과 허벅지, 다리 근육들과 발목. 이 모두를 강렬하고 강력하게 사용해서 검투사가 생사를 놓고 싸우듯 상대와 치고 박고 경기를 한다.

그런데 발꿈치들 만든 발레리나의 우아하고 리듬과 선율에
맞춰 뒤꿈치를 띄고 춤을 추듯이 그렇게 링 위 바닥에 닿지
않은 채로 춤 스텝으로 치열한 경기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사람살이, 무엇으로 가벼워지는가?'
'어느 부위,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마음의 문제이겠지? 몸은 당연히 아닐 테고?'
'관계의 문제? 경제력의 문제? 도대체 뭘까?'

복싱과 발레는 뒷발꿈치.
생활과 심신은 일상생활.

특별한 날도 아니고, 대단한 날도 아니고,
그때-거기-그 일, 저 때-저 곳-저 일도 아니고,
지금-여기-이 일, 일상생활.

치열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격렬한 정신과 마음으로 산다.
세상살이가 바로 대부분의 일상살이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분명 세상보다 작고 적지만 그래서 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은 관념이고 흐름이고 제도이고
관계일 뿐, 일상생활은 실체이고 매 순간의 현현이고

무법무율의 상태이기에 내 몸과 마음이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일상생활의 뒷발꿈치
살짝 살짝, 폴짝 폴짝,
가만 가만, 으쌰 으쌰,
세상 바닥에 올라 살이 하지만,
떼기 위해 닿는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상태이든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스텝으로
가볍게 가볍게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세상살이 링 위에 올라와 있다면, 모두 제 나름의 고유한
성정nature과 싫음liking이 있는 산 존재들이다. 그런데 오직
본능instinct와 원함wanting으로 미친듯이 싸우듯 산다.
가만보면 일상생활이 없고 오직 일상적 하루하루 살이가
있을 뿐이다.

발뒤꿈치를 절대로 세상 흐름과 대세와 유행과 비교와
경쟁이라는 링 바닥에서 띄지를 않는다. 그런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 준 적도 배운 적도 스스로 알려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온 몸을 세상 살이 토대에 건물처럼, 그 정도가 안 된다면 텐트라도 박아 고정해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현 시대 동시대인들의 생활방법이다.

링에 올랐으면 링의 시설물적 구조와 각각 다른 재질의 링의 구조체들을 링에서 내려 올 때까지 신뢰하고, 또한 자신이 복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중간 중간 잠깐씩만 휴식할 수 있고, 십 회가 넘는 라운드를 줄곡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 때, 발뒤꿈치만은 주로 들고 있음으로 자 상대의 계속 되는 매서운 공격에도 자신의 몸과 정신은 리듬과 바이브와 자유와 여유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 속 감사하면 들린다.

매 순간 기뻐하면 뜨인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힘 난다.

자신의 발뒤꿈치, 즉 누구에게도 보이지도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자신의 향상을 여기-지금-이렇게 가볍고 경쾌하게 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다 한 번씩 뒷꿈치를 적절한 세기로 '투웅~'하고 내려 놓으면 압전효과piezoelectric effect로 몸통이 존재체인 사람 내부에서는 생화학 물질 분비 되고 미세 전기까지 발생 되어 활기와 활력이 생긴다.

이것이 복싱에서 파퀴아오의 평생토록 고통과 지난한 복싱 기술과 방법을 체득해 놓은 자 역시 끊임 없이 다시 되내이고, 또 기억하고, 거듭 실행하는 링 위, 바로 지금-여기의 자기 복싱의 방식의 요체인 것이다.

얼굴이 다 터지고 붓고
별개지고 검푸르러 지고
몸통은 주먹질로 샌드백이어도
내가 평생 낀 헤어진 글러브를
내 얼굴을 이제 하늘 향해 들고
더 없이 환하고 환희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활심방식

活心方式

뇌는 사람을 지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장기들 중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은 없다. 감정까지 느끼고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일을 수행하게 하는 분석, 파악 그리고 결론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뇌는 두개골 안에 플라톤의 동굴의 사람들 처럼, 둘러 쌓여 그 안에만 있다. 오직 눈과 귀와 피부와 코와 혀등의 감각 기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통역과 해석과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불교에서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과거 기억의 저장소도 있고 출생 후 보고 배우고 자란 풍습과 사회 관습, 종교나 통념을 구조화 해 두고 있는 곳도 있다.

해부학자들 앞에서는 그저 골이 패인 두부와도 같은 느낌의 한 덩이 장기 일 뿐이다. 그런데 그 안을 조사하면, 수도 없는 수의 시냅스들이 각각 그리고 연결망으로 존재하고 있다. 신체가 들숨 날숨 중 하나만을 하고 끝날 때까지 시냅스는 계속 생기고 서로 연결하려고 한다.

자기 뇌라고 해서 이 뇌에게 단 한 마디도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 나는 일들은 알 길이 없다. 그저 과학적 실험과 조사, 그리고 계속 진보하는 의료기기들을 통해 '뇌와 구조 & 뇌의 작용'에 대한 영상과 설명문을 읽고 뇌가 작동함으로 사람은 '뇌는 이렇구나!'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은 뇌에 있다.

어떤 특정한 형편과 상황에서 평시에는 절대로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대처 방법을 산출해 내기도 한다. 물론 사람마다 뇌 기능의 질과 양이라는 스펙트럼에 차이가 보일 정도로 이쪽 저쪽으로 포진 되어 있기는 하다.

일상생활에서는 뇌가 마치 필요 없을 것처럼 뇌는 이미 모두 학습하고 파악하여 구조화 해 둔 시냅스 연결망 부분을 통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도 막힘 없이 하던 대로 거의 모든 행동들과 작업들을 익숙하게 신체가 해 내도록 해 둔다.

그래서 매일 사람들을 어떤 상황, 형편 그리고 일상에서도 살아 갈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뇌는 약물이나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없다면, 사람 평생 거의 이렇게 자율체성 自律體性 somatic intelligence을 통해 두개골 굴 안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표현 되는 사람 존재의 고갱이core는 뇌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마음에는 자체의 작동 원리 곧 심리 心理 가 있다. 뇌가 몸뚱이에 관한 것somatic이라면, 마음은 정신에 관한 것psychological 이다.

뇌는 시냅스와 각 부분의 역할 분화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음은 시냅스도 어떤 특정 장기나 엽葉lobe가 없다. 마음은 실제 작용할 뿐, 머리와 두개골 그리고 그 안의 뇌, 이런 구조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신앙인들에게 신神처럼, '존재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보이지 않고 볼수 없는 존재'와 매우 흡사한 상태이다. 뇌를 아무리 해부하고 최신초정밀광학현미경이나 뇌 안을 투시해서 모니터로 실시간 보여 주는 기기로 뇌를 분석해도 마음이라고 할 만 한 것이 절대로 발견 될 리 만무하다.

'뇌가 마음이다. 혹은 뇌의 작용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과거에 혹은 지금도 뭐 이 정도도로 '생각하고(뇌)' '믿는다(마음)'.

마음대로, 마음껏,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에 맞게, 마음에 들게....또 그 반대의 표현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예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또 그 반대의 마음들....

건강이라는 것을 거의 히스테리적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인류가 이 시대 대한민국민들이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더 자세히는 피부와 그 속, 즉 신체의 특정 부분이나 작동을 돕도록 섹생이나 운동, 성형이나 피부 관리(주로 얼굴)에 대부분 관심을 쏟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건강은 참으로 중요하다. 실제 생활에서 활력을 발생 시키는 신체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마음 건강도 소중하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활기를 생산해 내는 마음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다고 해도 여성들이 얼굴이나 목 정도를 매일 자세히 보는 것 외에는 건강 자체가 대상이고 목표이지 자신의 신체 자체를 매일 마음을 갖고 바라봐 주고, 마음을 품고 만져 주고 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되레 이상한 사람.

마음은 뇌가 안 하는 것들을 한다. 뇌가 못하는 것들조차 한다. 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마디도 대화 할 수 없는 이 수 경의 수와 종류의 이중 생명체들이 외형을 이루며 그 겉과 속에 모여 이루어진 모음(몸): 체(體)가 산 사람이다.

마음은 이 모음에 있다. 겉과 속에 있다. 밖과 안이 아니다. 타자와 자아가 아니다. 자기 몸의 겉 피부와 외면 그리고 그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뇌와 긴밀히 연결 되어 있는 형편과 상태를 본성本性instinct라는 것으로 있다.

뇌와 연결 된 상태와 형편이 불가항적, 태생적, 불가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늘 뇌로 인한 영향을 강하고 급하게 늘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뇌나 마음이나 별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들 사는 것이다. 뭐를 더 어찌겠는가? 건강을 챙기는 것, 잘 사는 것이면 된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었듯이 건강한 신체는 활력을 품고 발생시키는 사는 동안의 모음체이고, 건강한 마음은 밝고 가볍고 따듯한 활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라면, 마음은 뇌와 함께 그러나 늘 따로 챙겨야 하는 것이 된다.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노력들은 뇌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완벽한 몸짱과 건강 나이가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10이나 어리게 분석 되어도 그 곳에 건강한 마음이 없다면 모음체는 뇌가 있어도 안 된다.

마음의 가짐, 이 질과 수준 그리고 태와 품에 따라 건강이라는 목표는 일단 이룬 듯 해도 일상 제 생활에서는 절대로 활력있게 홀로 또는 함께 살아내지 못한다. 마음의 활기가

있을 때, 활력은 활인 活人 하는 자기 자체와 자기 생활
실제에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휘 되고 변화 시키는
것이다.

마음의 가짐은 어떻게 갖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꼭 살뜰히
차근차근 잠시라도 살펴 보면 된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나
이대로이어야 한다. 감정이든, 사건이든, 문제든, 기대든,
소망이든, 아픔이든, 상처든, 기쁨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물건들이든, 집 안의 무언가이든...뇌도 의지하는 눈과 코와
귀와 피부로 하나씩 평소 무시無視에서 지금의 주시注視로
하면 된다. 이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에, '마음이 생길 것이다'.

바로 이 때 반복적으로 나를 잡고 휘두르기도 하고, 하늘에
띄워 황홀하게도 했었던, 그런 반사적 半 死 的
거짓마음pseudo-mind이 뇌로도, 어디로도 못가고 반드시
퇴출退出 된다. 이렇게 자기진심自己眞心이 환하게 빛나며
때로는 조그마한 요정처럼, 때로는 영광으로 압도하며 그
영광을 충전해 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 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활기가 일어나 나타나 있다. 활기가 내 겉과 속을 덮는다.
활기가 활력 없었던 자기 모음체에 세상 그리고 내 밖과 안,
그 어디에도 없었던, 새로운 기력氣力spirit을 채워 준다.

활기가 활력으로 넘치는 모음체는 매일 일상이 그저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었던 자신을, 기쁨과 사랑의 정신과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해 놓는다. 활인방식.

뭐든 하고 싶지 않게 된다. 그러나 싶음liking이 생긴다. 그러면 뭐든 해도 된다. 뭐든 목표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활인된 성정性情이 원하는, 사랑으로만 시작하고 과정하고 마무리하는 그 목표를 활인무애活人無碍하게 실행하면 된다. 뭐든 바람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활기가 임한 구별된 자기 일상, 자기 모음체라는 거룩한 땅에holy place 그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곧 이루어짐이 되어 불어 온다.

독생방식

獨生方式

사람은 어미의 자궁에서 10개월여 있다가 세상에 나온다. 분리 되는 순간이 출생일이 된다. 개인이 되는 날이 생일이 된다. 돌보아 주고 길러 주고 가르치며 또 10여년 아니 그 이상 부모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예전에는 대가족과 소가족만 있었다. 그러다가 핵가족이라는 생겼었다. 이제는 1인 가구라는 형태의 사회 구성의 형태와 상황이 등장했다. 2026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는 1002만 1413 가구이다. 천만 가구 시대이다. 전국적으로 20대와 30대 1인 가구 비율은 천만 가구 중, 32% 정도에 이른다.

서울은 일인가구 비율은 40%를 상회한다.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 예측들 하니 가족 제도와 사회 구성의 형태와 상황은 이미 기후 변화와 더불어 지금의 현실이 되어 있다.

이제는 반은 같이, 반은 혼자 사는 것이다. 특별히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거의 38%이다. 이들과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이 같은 30%대에 있다. 2025년 젊은 층, 특별히 30대 초반의 결혼율이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상태와 상황을 변화 시키기에는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치와 변화 추이다.

사회 생활을 통해 타인들과 접촉하고 일정 기간 만남도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그 실제 형태와 상태를 상실해 버렸다. 4인 가족 이상의 비율은 변화 없이 매년 줄곡 하락세이다. 가족의 재해석이나 재구성이 아니라, 가족 아닌 새로운 형태와 상태의 구성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어떤 형태로 사회의 구성으로 출현하여 그 비율이 증가 하던간에, '1인 가구 인간 (호모 도미솔루스Homo domisolus)'은 지금과 앞으로 시대의 사람살이 방정식의 상수 常數 이다. 가족이라는 자궁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나오는 출생이나 탄생의 독립이 1인 가구 인간이 아니다. 부모가 있어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함께 집에서 사는 가족들이 없는 혼자 사는 이들이 바로 호모 도미솔루스이다.

집domus에 홀로solus 사는 인간Homo. 이제로 이미 진즉 시작되어 인간 삶과 사회 구성 방법의 생태이다. 이 기후대에서 이 생태계에서 사람은 혼자 사는 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며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혼자 남겨진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자기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독생방식 獨生方式은 이제 모두가 AI 사용하고 점점 더 수준 높은 작업을 하는 실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사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 일인으로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남극의 맥머도 연구 기지에는 두 대의 현금 인출기가 있다. 왜 두 대일까?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인출기의 부품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다. 뉴질랜드 남섬에서 남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아남극(Subantarctic) 해역에 위치한 외딴 무인도, 남극을 제외하면 뉴질랜드 영토 중 가장 남단에 위치한 캠벨 섬에는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있다. 오래 전 그곳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펭귄과 바다표범들이 있는 곳에. 모하비 사막에도 공중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대의 전화를 통해 연락을 했다고 한다.

누군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계해야 하고, 만나야 하고, 함께 해야 하고, 연락해야 사람은 스스로 사람이라고 부지불식 중 인정하고 계속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 날 때부터 절대적 개인일 수 없고, 영원히 사회와 공동체와 심지어 사랑하는 이에게도 완전히 속해 있을 수도 없다. 사멸 死滅 하기에. 이러한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과 상태가 독생방식을 체득하고 활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취약성에 한껏 노출 된 현실이 바로 자신이 두 발을 딛고 매일 일상을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 토대인 것이다.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온갖 아픈 감정들이 겨울 바람 얼굴을 때리듯 친다.

이렇게 볼이 얼얼하고 때로는 터질 때까지 있는 것이 삶이다. 현실이다. 무지하고 무력하다. 취약하고 연약하다. 이것이 생명들의 모음체인 나라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홀로 데리고 살 때, 그리고 계속 이 방식을 여러모로 애쓰며 깊고 독특하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연약성은 단단해 진다. 취약성이 견고해 진다.

독생 방식으로 사는 나, 내가 어떻게 사나 보며 적어 본 글이다:

곁에 누가 없다고 외로워요?
누가 있으면 그 이, 내 곁일까요?

말과 뜻이 통하는 곁님은
내가 곁님이 되면 곁에 와요

누가 없을 때는 외로워 해요
누구도 없을 때는 고독해 봐요

단 몸과 마음, 생활과 지성을
늘 수련하고 수행하고 키우도록 해요

계절 왔다 가면, 홀로 남은 듯.
간 계절, 온 계절, 누구도 혼자 아네요

오고 갈 때 늘상 일상 자기 친구 되면,
나의 나됨에 이른 곁님도 그가 그 되어 오겠죠

내 곁님은 나 혼자 괴롭고 불안하다고
배송 되는 물품이 아니에요.

내 곁은 천작지합天作之合,
하늘이 지어 주신 너, 나, 우리 되는 사랑.

여기까지 쓰면, 나는 일용할 양식, 밥을 지으러 간다. 홀로
사는 나를 살리는 참으로 근사한 방식의 삶이다.

역체방식

力體方式

몸은 '관하여' 이야기 하고 '대하여' 말하기 참 쉬운 주제이다. 그런데 동시에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대상이다.

몸은 주로 컨디션이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자기 표현과 멋, 돈벌이를 위한 업무와 노동 그리고 생각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 된다.

그래서 건강과 컨디션은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는 최상위 위치에 올랐 되어 있다. 몸은 자기 인식, 생활, 관계, 삶의 질을 위해서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가수 장기하가 뉴스 인터뷰 코너에 나와서 '저에겐 몸뚱이가 다 이다.' 했다. 몸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몸은 나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몸을 본다. 그리고는 인사를 건넨다. 'Good to see you agine!' 언젠가 어느 때부터 나라는 사람 뿐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이라는 사람들도 못 볼 육체이다.

정신은 몸을 지배하고, 이성으로 육체를 적절히 제어해야 이 세상 산다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정신과 이성, 감정과 의지가 너무들 유사한 방법들로만 조합 된 뻔한 것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육체가 썩으려면 죽어야 한다. 숨이 끊겨야 한다. 그런데 정신과 이성, 감정과 의지는 살아서 썩는다. 어느 정도 썩지 않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렇게들 살면서 육체는 오직 썩어져 있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할 뿐이다.

앉으나 서 있으나, 걷든 운전을 하든, 하루 중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던간에 사람은 육체이다. 육체가 살아 있는 사람. 왜 이토록 분과 화, 실망과 원망, 바람과 우울로 썩어서 더 썩어 가는 심령의 소유자들이 어찌 이리 많아 지는가?

육체의 정육? 육체는 본연의 성정과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일하고 움직이고 눕고 자고 일어난다.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이다. 사람의 육신은 SI, Somatic Intelligence 육체 지능이 있다.

자기가 장군이고 육신은 일개 군사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건강과 기분과 환경은 자신의 主君 주군 이다. 자기 정신, 의지, 감정, 지식, 정보, 기분, 환경 중 뭐 하나 제 몸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없다.

어디가나 온통 사회나 유행, 인플루언서나 처세 방법의 산물일 뿐이다. 자기 육체야말로 자율自律 치혼治魂의 흡사신과 같은 경이로운 셀 수 없는 생명 물질들이 알아서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음체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몸과 의논 한다. 그러면 '이것이다! 이렇게 해라!' 요즘 여기 저기 들리는 방법 주입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나타난다.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욕망하여 썩어지게 하는 내 정신과 이성과 감정의 바램들을, 위대하고 경탄할 만한 능력인 머뭇거림과 주저함을 통해 실제 행동하며 이루고 있게 된다.

육체에 힘과 신뢰를 실어 주는 일상의 생활 방식(역체방식力體方式)은 세상의 가치와 사회의 기능, 제도와 힘든 과정과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인정하며 동시에 초월하게

한다. 마음대로, 마음껏, 마음에 맞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이루고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의 속은 썩는다. 썩은 생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한들, 근처에만 가면 그 생선이 반드시 알려 준다. 나 썩었다고.

육체를 살아 펴터인다. 사는 동안 내내. 썩지 않는다. 괴사하지 않는다. 부패한 말과 향과 태를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몸 자체는 신선 할 뿐이다. 육체와 함께 숙성 되어 가며 성숙의 됄됨이의 이가 된다.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것들을 '늘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육체'가 향유 享有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누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몸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 길이 없다. 알 려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의 무지, 무력, 무능을 몸으로 알고 사람살이의 현실로 인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희귀하다. 그러니 수 많은 무리들이 실제 자신의 됄은 무지해, 무기력, 무능력이니까, 이를 없애려고 묘책이나 방법들을 그토록 찾아 다니며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정신 바짝 차리고, 정확히 알고, 할 수 있고, 해 내야 된다 착각하며, 이것이 '내가 살 방법'이다 하며 그렇게 산다. 계속 돈과 소유와 물질은 가장 중요한 인생용품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잠시 있다 가는 일생을 사람이라는 생명

모음체로 제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서로 나눌 수 있을리 만무하다. 늘 불안, 불평 그리고 불만일 뿐이다. 그 사람의 몸은 없다. 늘.

계속 돌고 도는 수레바퀴(윤회輪廻) 인생 쏘를 관람하자니, 그저 안스럽고 애답게 보일 뿐이다. 이와 이 방법, 이와 저 방법, 저와 저 방법, 저와 이 방법...방법만 갈아 살고 있다. 무대에는 그림자 하나 없다. 우주 최고인 신비 현상인 몸을 입고 생명을 가진 존재, 일생 일회일기, 자기 몸과의 인연을 저버려 몸 없이 사는 그림자 없는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한 장면들만 보인다.

인류 역사에 계속 거듭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 그 방법의 수 많은 분신들로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탈출도 구조도 필요 없다. 그저 제 몸 좀 보고 경이롭게 다 이루어진 존재인 자신으로 깨어나 자기 육체를 정신과 마음과 일상생활의 주역主役으로 복권 시키면 그뿐이다.

육체가 힘을 얻으니, 그림자도 부끄럼이 아니다.

움직이는 몸과 교감하며 교통하는 자신이 있다면 괜찮다.

사는 동안 내내 족족하게 살 수 있다.

재현방식

在現方式

글을 쓰고 있는 '여기에 지금 내가 있다'의 작은 따옴표 안을 영어로 하면, 'I'm here now'라 하면 된다. 'I'm here', 'I am now'. 나는 여기이다. 그리고 지금이다. '어디 있어요?' 물으면, '나 여기 있어' 소리쳐 알려 준다. 오랜만에 연락한 이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하면, '나 지금 000에 살고 있어요.' 혹은 '지금도 그 때 그 곳에서 살고 있어요.'라고 답한다.

나 + 지금 + 여기 = 나의 현실.

사람과 공간이 함께 실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금이고 현재가 된다.

현재라는 시간은 마치 쌍둥이 형제와 같다. 낳아 주고 길러 주고 함께 했었던 엄마 과거와 살아갈 날들 혹은 남은 날들인 아빠 미래 사이에서 낳은.

엄마는 늘 가출한다. 여기 지금 언제나 없다. 그런데 분명 함께 했었고 사실 증빙과 기억과 자료들 투성이이다. 아빠는 늘 출가한다. 여기 지금 아닌 멀고 아직인 어딘가에 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소망과 이어지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변화 속에서 느껴지고 잠시 살짝 보이기도 한다.

현재라는 두 아이는 평생 매일 같이 둘이 함께 하며 살아간다. 가끔 서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서로 묻다가 둘 다 웃어버린다.

차이가 있다면, 한 아이는 자신을 본다. 자기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보다 더 알고 싶은 것을 찾고 구하며 실제 만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이인지 알아 간다. 다른 아이는 엄마 생각, 아빠 생각으로 자신을 산다. 현재라는 시공간체이지만 그 마음과 정신, 감정과 정서는 모두 엄마 혹은 아빠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 간다. 자신이 없다.

사람이 완전히 홀로 일 수도 순전히 전체의 일부분 일 수도 없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 그 때 그 순간까지는 단 일 초도 여기-지금외의 다른 곳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역시 진리이다.

다시 한 번 더, 나 + 지금 + 여기 = 나의 현실.

더욱 더 현실적으로, 지금 + 여기 + 내 몸 = 나.

나의 현실에서 나를 토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재현방식在現方式이다. 그 바닥을 딛고서 거기서 팔 다리를 마음껏 움직이도록 놓아 주고 정신과 이성과 감성을 영성이 바닥이 아닌 공중에 하늘 높이 심지어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도록 한다.

뭐가 보이는가? 내가 보인다.

그 나라는 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자신의 바람과 소망과 꿈, 그리고 인생사 희노애락들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어디에 있는가?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

허면,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란 결국 뭇 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더이상 없음이고 이제는 있음이다.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 이렇게 나 있음, 그것이다.

יְהוָה רָעִי לֹא אֶחָסֵר

아도나이 로이 로 에크흐사르.

목자는 양과 함께 바로 그 들판 그곳
그 시간 속에 자기 몸을 두고 있다.
그런 곳에는 양들은 풀들로 목자는 양들의 안위로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다.

무얼 하는 존재는 Human Doing이다. 존재하기에 무얼 하는
이는 Human Being이다.

현존하는 것은 바로 다른 생명체들에 비하면 마치 신 神 과
같은 현재의 나이다. 현재,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나는
존귀하고 찬미할 만하고 감사로 춤추는 조르바Zorba이며
싯다Siddha이다.

더 없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가 진리를 우리에게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전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시는 일에 너희의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라. 내일 있을지도 모를 일로 안달하지 마라.
너희에게 베타는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마6:34, MSG)'

'너희가 거울 앞에서 설치고 안달한다고 해서, 키가 단 1센티미터라도 커질 수 있느냐? 유행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옷장을 들여다보는 대신, 들판으로 나가서 야생화를 보아라. 꽃들은 치장하거나 옷을 사지 않지만, 너희는 그토록 오묘한 색채와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에서 가장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라도 그 꽃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인다.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 들꽃의 겉모습까지 그토록 정성껏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겠느냐?(마6:28~30, MSG)'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너희의 영감받은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요10:34, MSG)'

평생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한 여인의 무덤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다:

'평생 내일 걱정애 죽을 듯 힘겹고 괴롭게 살다가,
2000.00.00. 오늘 여기 묻혔다. 이제는 평안하기를!'

거처방식

去處方式

지금 머물고 있고 살고 있는 곳은 거처居處 residence이다.
사람이 간 곳, 가게 될 곳은 거처去處whereabout이다.

사람들은 동네와 건물을 보고 자기 거처로 또 투자처로
정한다. 서울 내에 있는 그것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면
최고이다.

그 외에는 평생 그런 동네들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살 수
없어 살 수 없다. 충분한 재정력이 없고 특별한 도움도 없고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직장도 없으면 그렇다.

그래서 전국 인구의 열 명중 두 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2025년 통계 기준).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 시키면, 열에 다섯이 살고 있다.

면적으로는 대한민국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가능 지역의 총 합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16%로 열에 둘이 채 되지 못한다. 그런데 다섯이 살고 있다.

살아야 할 곳은 최상의 유무형 인프라와 최고의 학군과 직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좋다. 사람들은 모여 살며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자아와 삶의 목표들을 이루면서 살아 간다.

앞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인구 감소의 추이 속에서도 증가, 증폭 될 것이다. 외국인들, 특별히 청년들이 한국 특히 서울에서 단기라도 살고 싶어 할 정도의 살 만한 곳이다.

너 나 할 것 없는 우리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지상정인지라, 거의 모든 이들의 공통 분모이자 합일점이다.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이 맞 닿은 곳에서 정부가 정책을 도움이 안 되게 실행하면 분모들과 점들은 모여 반대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면서 혹은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때때로 인천 공항을 통해 해외 여행을 다녀 오고 가끔 좋은 이들과 티타임과 식사를 하며

교제하며 지내면 사실상 조상들이 완전히 은덕을 몰빵해 준 인생이 된다.

사는 곳을 레지던스라고 하고 가는 곳과 가게 될 곳을 웨얼어바웃이라고 굳이 영어를 한글발음으로 사용을 하자면, 레지던스도 서울, 웨얼어바웃도 서울 내의 더 중심, 더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서울에서 찾으면 된다. 살고 싶어 사서 사는 곳도, 앞으로 가고 싶고 가서 살 곳도 서울이다.

이 정도 되면, 어드렛 시대가 바뀌어 서울이야말로 하늘 아래, 한 번 인생 살아 보고 싶고, 또 내 자식들도 대를 이어 살아야 할 곳이 되었다.

최고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하고 산다는 것은 결단코 대한민국 국민들 중 상위 20% 안에 드는 좋은 주거 환경과 재산증식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서울은 2026년 9월 현재 기준, 대한민국인들 반 이상의 거처居處residence이자 거처去處whereabout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를 두고 떠난다? 소유하고 있는 집도 남에게 팔고

혹은 건네고 뜬다? 평생 두고두고 가슴 치며 후회할 어리석은 판단이다.

현실에서 완전한 피난처나 행복 유토피아는 없다. 자신을 서울에 전입 시키고 등기 치고 그런 이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나쁜 소식이다. 서울은 지상 천국이 아니다. 물론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이 분명 집약 되어 있는 한국 최고의 도시이다.

종교에서는 어떤 특정 장소를 신성시하고 그곳 곁에 사는 이들은 다른 장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도성에서 산다 여기며 살고 있다. 그 쪽을 향해 절을 매일 올리고 기도를 드린다. 참 경건한 자세임에 분명하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은 그곳에 입성하는 꿈을 꾸고 실제 계획을 하며 살아 간다.

기독교, 이슬람교는 중동에서 발원한 종교들이다. 그곳은 근대부터 현재에 이르러 더욱 치열한 전투와 전쟁도 빈번히 일어나는 세계의 화약고 일번지이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에게는 성지聖地이다. 샬롬, 샬렘. 모두 야훼와 알라의 평화를 비는 인사말들이다.

의식주 衣食住로서의 주는 물질세계에서 생명체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主 된 필요품들이다. 뭐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살이 참 곤핍해 진다. 그러나 한편

의식주가 이토록 보편 다수적으로 보장되고 기본으로 구축되어 있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레지던스가 웨얼어바웃이 될 필요가 있는 절대 무주택 상태의 사람들은 적다.

거처居處를 거처去處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웨얼어바웃과 레지던스와의 관계성과 유사점이 있다. 장소를 성소로 삼고 사는 종교인들은 서울을 모든 거주지들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이들의 신념과 많이 닮아 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자신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한 중에 그 곳을 찾아 나서는 제 삶의 탐험조종사pathfinder는 거처방식去處方式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몇 년전 어디에 살았는가에 대한 행정 주소상 기록들은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살는지 알려 주는 곳은 없다.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소지와 장소, 지역과 건축물 명칭으로 자기의 갈 바whereabouts를 이미 정하고 목표하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residence로 삼고자 희망하며 계획하고 산다. 여기에 그 어떤 옳고 그름의 여지가 끼어 들 틈은 전혀 없다. 그저 그렇게 알고 살아 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곳으로 암중모색하며 지도와 지혜와 만남을 겪으며 찾아 가는 것이 오늘과 내일의 자기 일상생활 정신이 되면 어떠할까 싶다. 1년 후에 자신이 어떠한 자기를 만날까는 대중 심리학에서 기원한 사람들을 이런 저런 유형으로 파악해 놓은 사람 성향의 종류 만큼 경우의 수가 많다.

거처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주소지가 어디이든, 거주하는 건물의 형태가 무엇이든 그것은 일절 상관 없다. 그 사람은 늘 자기를 다정하게 데리고 제 자신을 찾아 그 어렵고 난감한 길을 찾아 걸어 가는 매일을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가늠만 있을 뿐이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스승 예수와 예루살렘에 입성whereabouts하여 각자의 거처residence를 잡고 그곳에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들고 영향과 감화를 받는 곳을 거처whereabouts로 꿈꾸고 소망했었던 제자들이. 예수가 답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네 안에 천국 있으니 찾아 그 길 가거라'.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대부분의 승인으로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받고 그곳place to be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 바로 죽기전, 거처방식자의 마음의 말을 자신에게 건넸었던 죄수에게 또한 말했다. '너는 분명히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러 있을 것whereabouts이다'.

일상방식

日常方式

간장을 18리터 통에서 커다란 어항용 스포이드로 매일 사용하기에 좋을 용기에 담는다. 얼마나 무거운지 금속 통을 들어 다른 용기에 담으면 거의 열에 아홉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깨끗히 세척하고 완전히 말린, 여러 종류의 소분용 펌프들을 사용하면 예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 액체 전용 용기에 담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로 1리터는 1킬로그램이다. 그런데 그건 순수한 물이 4° C의 온도 기준이니까 액체 종류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다. 간장 1리터는 1.15~1.2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금과 콩의 다양한 성분이 뽀뽀하게 녹아 있어 순수한 물보다 밀도가 높아 조금 더 무겁다.

0% 이상 1% 미만의 차이.

탈 엘-하맘Tall el-Hammam이라는 고대 도시의 유적이 발굴되고 연구 되었다. B.C. 1650년경 상공에서 거대한 운석이 폭발하면서, 섭씨 2,000도 이상의 불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인구가 순식간에 절멸한 고고학적 증거 (녹아내린 도자기와 두꺼운 잿더미)가 발굴 된 것이다. 고고학적 가설에 의하면, 그 도시 내의 주거 인구가 약 8,000명 정도였고, 주변 평야 지역까지 포함 하면 4만 ~ 6만 5천 명으로 추론하고 있다. 인구 숫자가 핵심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몇 천 명이든 몇 만 명이든, 결국 단 1% 이내의 괜찮은 마음 성분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파괴, 소멸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8장 23~24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야훼 신에게 따지듯 묻는 기록이 등장한다. 유진 피터슨 교수의 번역본이다:

"Are you planning on getting rid of the good people right along with the bad?(나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사람들도 쓸어버리실 작정이십니까?)"

"What if there are fifty decent people left in the city..."
(만약 그 성에 괜찮은 사람 오십 명이 남아 있다면...)

여기서 괜찮은(good, decent) 사람의 수가 50으로 시작해, 45, 40, 30, 20 그리고 최종 10명으로 협상은 종결 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 많은 생명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도 싶다. 시시비비라기 보다, 어떻게 1% 미만이면 다 살고, 그렇지 않으면 종말로 확정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0% 이상 1% 미만의 차이.

사람의 뇌가 죽을 때까지 몇 퍼센트의 뇌도 사용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포함해 전부 생 거짓이다. 대중매체와 자기계발 강사들 중 일부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유명인의 권위를 빌려 제조한 초가공 찌꺼품일 뿐이다.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자신의 뇌를-인식의 범위 밖에서지만-실제적으로 100% 모두 풀 가동하고 있고, 또 그렇기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과

양전자 단층 촬영(PET) 기술로 뇌를 스캔 하면, 사람은 단순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도 뇌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 된다. 특정 작업을 할 때 연관된 부위가 '더 강하게' 활성화될 뿐, 어두운 채로 잠들어 있는 뇌 영역은 없다. 물론 한 순간에 100%가 모두 사용 된다는 가정을 할 때, 그 때는 발작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뇌는 활동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뇌의 무게는 약 1,230g으로, 일반 성인 남성의 평균 뇌 무게(1,300~1,400g)보다 오히려 약간 가벼웠다. 단지 몇 가지 특이점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신경 교세포가 남달리 많이 발견 되었다고 한다.

신경 교세포가 지능과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

1. 뇌의 에너지 보급망이 월등히 발달.
2. 신경 신호의 전달 속도가 수십 배 이상 비약적으로 빠르게 함.
3. 뇌 속의 청소부 역할을 하며, 시냅스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 뇌가 발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연결된 시냅스들을 과감하게 잘라냄으로 신경망을 노이즈 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교한 회로를 갖추게 함.

사람의 뇌는 전체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뇌가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산소와 포도당)의 약 20%를 소모한다. 98%의 신체들이 8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단 2%의 용량에 불과한 이 작디 작은 기관을 위해, 분명한 생체학적 이유 없이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도록 진화했을 리가 없다.

0% 이상 2% 이내의 차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식물(일반적으로 과일이라 불림), 딸기가 있다. 먹는 붉은 과육 부분은 꽃받침이 변형된 화탁receptacle이다. 곁에 콕콕 박혀 있는 깨알 같은 참깨 모양이 실제 식물학적 의미의 진짜 열매이자 씨앗인 수과achene이다. 이 진짜 씨앗(수과)들이 전체 딸기에서 차지하는 용량과 무게의 비율은 1% 미만(보통 0.5% ~ 0.8%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9% 이상을 붉은 과육(화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씨앗의 개수는 일반적 크기의 딸기 1개 표면에 평균 약 200개 박혀 있다(상업용 개량종은 300~400개). 씨앗 1개의 평균 무게는 약 0.4 ~ 0.5mg이다. 간단한 계산 잠시 해 보자면, 200개 씨앗 $\times$ 0.45mg = 약 90mg (0.09g). 흔히 먹는 일반적인 딸기 1개의 평균 무게는 약 12g ~ 15g (12,000mg ~ 15,000mg) 내외, 0.09g(전체 씨앗 무게) $\div$ 12g(딸기 전체

무게) = 0.0075 즉, 수분으로 가득 찬 붉은 화탁 부위가 절대적인 부피와 무게를 차지하고, 딸기 표면에 있는 수백 개의 진짜 씨앗들을 모두 곱어모아도 그 비율은 전체의 0.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 미만이다.

씨앗이 없어도 딸기는 충분히 생산 된다. 어미 딸기母株에서 영양분을 가득 담은 긴 줄기(런너runner)가 나온다. 런너가 땅에 닿은 마디 부분에서 새로운 잎과 뿌리가 돋아난다. 뿌리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자라면 농부가 어미와 연결된 런너(줄기)를 가위로 툇 잘라낸다. 이렇게 어미에게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한 새끼 식물이 바로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밭에 정식으로 심는 '딸기 모종'이다.

농부들에게는 절대로 씨앗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 모종이면 다 된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씨앗이 없으면 새롭고 더 나은 교배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농부가 아닌 농업 연구원(육종가)들이 완전히 새로운 품종의 딸기를 개발(교배)할 때는 씨앗을 채취하여 조심스럽게 심고 연구해서 신품종, 개량종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0% 이상 1% 미만의 차이.

일상 하루, 바로 여기-지금 이 순간은 백세 평생 혹은 팔구십 평생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다. 그 실제 크기도 무게도 딸기씨 하나나 될까 말까이다. 비율로는 1% 미만으로 0%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이 일상 하루, 지금 여기는 나라는 존재의 한 상태로서 너무 가볍고 우습고 낮게 평가 받고 있다.

일상방식은 지금-여기-이대로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 순간에 제 몸과 마음을 담고 쏟아, 생생을 새로움으로 발생, 탄생, 출현 시키는 인생가人生家lifeist, 작미가作味家の 생활 운영이다. 1% 미만의 것이 바로 일상이다. 일상 日常은 무상無常이다. 모든 것이 아무 보람도 없이 헛되고 덧없다 (고려대 한국어 사전, 무상의 {1} 정의). 이러한 사람의 헛되고 헛된 화살처럼 빠른 일평생 가운데 그저 하루 정도 따위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일상방식으로 사는 이는 매일 같이 자신을 거기 그 시간 그렇게 존재하는 차갑고 두렵고 당혹스럽고 도피하고 뜬 바로 그 일상에 신체와 심령 모두 투신 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생생하게 산다. 일단 들어가 있다보면, 참으로 기묘하고 고맙기 그지 없는 존재의 에너지가 그 작은 씨앗 안에 근원적 힘으로 역동하고 있음을 맛보아 알게 된다. 너무도 멋지고 놀라운 삶의 방식이다.

0% 이상 1% 미만의 차이.

계수방식

計壽方式

2026년 9월 중순을 지나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본거지가 사방 산들과 두 개의 계곡에 둘러싸여진 그 가운데의 대지 위 집이다. 여기서 8년 째 살고 있다. 이제 계절이 이전 절기와 정합 되지 않는 기후의 변화가 일상이 되었다. 6월부터 8월까지 사용 했었던 날파리살충제fly-killer가 다 떨어져서, 여전히 온난한 날이 계속되는 9월에 새로 20개를 주문했다. 충분할 것이다. 이 정도면. 틀림 없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다. '만약 이 9월이 나의 마지막 9월이라면?'. 에프 킬러를 거의 다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이다. 누가 발견하고 사용하겠지만, 내가 유언문에 유산 목록으로

잡아 둘 수도 없는 물품이고, 그냥 내 알 바, 내 손에서 벗어난 문제로 귀결 된다. 올해 내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었다.

남은 대부분의 살충제들은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 봄에 새 것처럼 사용하겠지만, 이 번에는 낭비나 객기가 아니라, 9월과 10월까지 20통 모두 뿌리고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여름 물품을 여름과 초가을까지 그 목적과 시기에 맞게 탕진하려 작전을 세운 것이다. 존재적 실험이고 예술적 행위이다. 나에게는.

인생을 여러 표현으로 묘사하는데, 그 중 '인생의 사계절이다.'라는 비유가 있다.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모두 계절처럼 지나 갔고, 다음 계절로 왔다가 또 지나 갔다. 그 중 내게 다시 올 계절은 없다. 오직 내가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를 살게 하는 전혀 새로운 계절들이 차례대로 찾아 올 것이다.

올 것은 사실 큰 걱정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계절들을 놓고 사색에 잠길 때, 그 때 훗날을 위해 나 스스로 그렇게까지 치열하고 열성을 다해 행했었던 것들 그리고 그렇게까지 귀한 분들의 사랑과 도움에 의해서 현재의 계절까지 전해 사용하고 활용하고 누리는 것들이

있다. 반면, 비율이나 수치나 갯수 혹은 정확한 상황과 사건들을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계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절 전용 용품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 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바라고 남 덕이나 남 탓하며 살지 못했다. 마음을 다해 이루고자 했고, 타인에게 받고 드리고(give & receive, not give & take)하며 살았었다. 마음껏 살지 못했다. 그 정도까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끝까지 해 본 것은 없다. 다만 마음 담아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과 대상에 담대하게 몸과 마음을 다 쏟으며 살았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견 재고해 보고 반드시 현재의 나에게 구비 시켜 주어야equipped 하겠다 하는 것이 있다. 그 나이대의 심신재리명心身財理命 즉, 다시 안 올 그 때 그 계절에 나 자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성정性情nature와 좋음愛好liking에서 형성된 마음과 몸과 물질과 환경과 신념 그리고 때의 생명 상태를 탕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어야 겠다 결단했다.

다 써도 아무 문제 없다. 다 못 써도 이 쪽 영역의 나는 절대로 다시 다음으로 이월 되고 이전 되지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다 사용해야 한다. 남겨도 다음 나에게도 못 주는 것, 절대로 타인에게도 불가능이다. 탕진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 드림과 감사 드림이다. 사랑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가 있고,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생 지옥이다. 사랑 드림은 뭘 주든 무얼 해 주든 자신 존재 전체가 두 발을 세상 바닥에서 다 든 채 사랑이라는 의자에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언행만사 言 行 萬 事 이다. 사랑하기에 시작해서 오직 사랑의 기쁨과 심정으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세상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경험하고 감사로 드림 하는 것이다.

상대가 그 사랑 드림에 부도를 낼 수 없다. 사랑 드림으로 자신을 탕진한 자는 드린 이로부터 받아낼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부도는 '못 갚겠다. 안 갚겠다.'이다. 감사 드림은 누구의 또 어떤 목표의 부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애초에 그리고 과정 속에서 무언가라도 받아 내려고 사랑을 탕진한 것이 아니기에 오직 잠잠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자기 마음 속 사랑의 노래와 감사의 춤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계산하고 계측하고 계획하고 계량하면서 살아야 겨우 제 밥벌이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삶이다. 모두 수치와 용량에 대한 분석이고 파악이다. 사칙연산이 언제나 핵심이다.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다 못해 더 나아가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인내와 타이밍에 대한 거침 없는 활용을 위해 지난한 세월, 매일 매일 쉼 없는 자신과의 싸움과 각고의 공부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얼 위해 이렇게 나는 남달리 그토록 그렇게, 수치와 용량을 유지하고 증가 시키기 위해 기꺼이 애를 쓰며 살고 있는가? 앞으로 올 계절과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은 계절과 남은 시대를 계수計數하는 능력과 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야 올 계절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도록 살아가는 내가 탕진해야 할 계절 물품들을 그제야 파악하고 알아 보는 눈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계수방식計壽方式으로 제 삶을 만끽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세상 희귀한 별종인간別種人間이다. 탕진 할 것들을 알아 때에 맞게 전부 소진하는 자만이, 일생일계一生一季를 자기 답게, 자기로서 자유무애自由無碍하게 인생 희노애락 모두가 멋과 맛과 향으로 체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해 봤어?'

이 질문이 반드시 과거 산업시대의 불굴의 도전 정신 태도나
요즈음 나만 못 해 보면 안 되지하는 정신 상태와 관계 된
것은 아니다.

'해 봤어?'

'해 볼래요!'

나 없는 것,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들로 이 계절 가기 전, 남김 없이 모두 다 써
버릴래요!'

사랑 드릴 이이고

감사 드릴 이이다.

활인방식

活人方式

활인무애活人無碍. 오랫동안 인생 강력한 추위가 몰려 왔을 때 조차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문구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장애 앞에서도 거침 없이 살아 간다.'는 의미이다.

세상을 구원하고 누군가 타인을 그렇게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원하고 이에 내가 스스로 기꺼이 받아 들이고 기쁨으로 따르겠다는 자기 삶에 대한 선언이다.

축사, 돈사, 양계장, 양식장, 횃집 수족관, 동물원 우리. 모두 돌봄을 받고 먹고 거할 곳을 제공 받는다. 자연 재해나 큰 사고가 없는 한 그렇게 관리의 손길 안에 산다.

멧돼지, 산양, 들개, 바다 속 물고기들, 밀림이나 초원의 동물들. 사람들이 차지해 버리고 남은 생존공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자연 환경 생태 속에서 치열한 생명 투쟁을 하고 산다.

사람의 제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동물들은 자연에 있든, 사람의 관리 속에 있든 둘 다 '생존과 죽음'이 매 순간의 현실인 듯 하다. 나의 빈약한 판단력으로 어설픈 분석을 해 본다면, 사람들 역시 '생존과 죽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생활과 노후'라고 달리 표현한다 해도.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무릇 천지란 만물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고, 사람의 인생이란 끝없이 뒤를 이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활인무애 방식이란, '염라대왕이 삼경 三更 에 부르면, 오경 五 更 까지 살 수 없다'는 속담을 진담으로 밝히 깨우쳐 알고, 늘 '다시 지금을 사는 것이다'.

이 방식을 실전 생활 전투에 활용하고 살다보면, 자연에 동물이든 사람 손에 동물이든 동일하게 '생존과 죽음'의 현실에 있다라고 한 것 처럼, 이 방식 아닌 세상의 다른 방법들로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인정도 지탄도, 고통과 고난도, 평안과 불안도 모두....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과 경험치가 다를 뿐이다:

1. 그저 그대로 내 버려두는 것이다. 애달프고 애간장이 타 들어가도 지금 여기 자신을 슬퍼하게 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삶의 한 영역에서는 참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 했던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할 필요가 없어 졌다. 나의 강점이든 장점이든 특별함이든 무엇이든 명명하던 이제껏 불완전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래도 남 달리 탁월하게 매일 같이 잘 해 왔었던 많은 영역들과 그 수준을 맞추고 속 내용을 정합하고 조화롭게 맞추는 작업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영·정조 시대의 선비 장훈의 집의 당호堂號는 당시에도 현재에도 보기 드문 별난 이름이다. '이이엄而已廣'. '이러면 이렇게 하면 그만而已, 저러면 그렇게 하면 그만而已'의 방식으로 사는 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홀로 머물 땐 낡은 거문고를 어루만지고 옛 책을 읽으면서 그 사이에 누웠다가 올려다보면 그만.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면, 나가서 산기슭을 걸어다니면 그만. 괜시리 도도해지는 감정이 일면 휘파람 불고 노래를 부르면 그만. 배가 고프면 밥을 지어 맛있게 먹으면 그만. 목이 마르면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면 그만. 추위와 더위가 쳐 들어 오면 그에 따라 미리 지어 놓은 옷을 입으면 그만. 해가 지면 내 집에서 쉬면 그만. 비 오는 아침, 눈

내리는 낮, 저 너머 석양과 한 밤 중의 달빛, 이토록 그윽한 삶의 신선 같은 정취를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기도 어렵고, 말해 주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이해 하지도 못할 뿐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있는 곳에서 하면 그만이라는 삶의 태도이다.

2. 조금 더 꼼꼼하고 살뜰한 마음을 갖추게 된다. 이 삶의 방식은 '여성스럽다, 차분하다, 완벽주의자 같다'라는 표현들로는 영 설명이 안 된다. '서두름이 없다. 지금 그 일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쓰며 한다, 조금 더 고상하게 한다, 덜 거칠게 한다. 조금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한다'는 표현과 일맥상통 한다.

작가 박홍신은 양치질을 할 때, 3분 분량의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방수가 되는 저렴한 mp3 플레이어에 몇 개 넣어 놓고, 그 중 하나를 틀고 양치의 시간을 온전한 3분의 치솔질의 때로 삼는다고 했다.

특정 나라에 대한 무례한 평가로 읽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운전을 해서 멕시코 티후아나라는 도시로 이동 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라, 렌트해서 지내고 있던 목조 아파트에는 여러 인종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았었다. 그 중 멕시코 이웃들이 가장 많았었다. 그 때

그 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는 했지만, 주차장, 쓰레기 버리는 공간, 공동 코인 세탁실등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 되고 있었다. 그런데 국경 검문을 받고 멕시코로 넘어 갔을 때의 기억은 다소 철학적인 질문과 영적인 깨달음에 가까운 무언가 었었다. 너무나 불결했었다. 동네 골목들, 신작대로의 양쪽 도로 펜스들, 숙소 내를 벗어 나는 순간 그 주위. 같은 인종의 사람들인데,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행정적 방식의 차이가 있는 장소에 따라 극과 극이라 표현할 정도로 다른 상태의 일상을 만들어 내는 현상에 나름대로의 깊은 생각을 해 보았다.

3. 사람의 생명은 드넓은 정원의 꽃들이다. 지금은 늘 지나가 버린다. 오전 8시 40분 정도에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 보자'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오후 2시 45분이다. 지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천지에 그 누구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이 어떤 특정 사람을 어떻게 특별히 하지도 않는다. 실제로만 분석하고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현재라는 관념으로 생각하고 언어로 표현 할 수 있을 뿐, 사실 없는 것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없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또 사람 앞에 순간 있다. 반면, 있다고 해도 지금은 일순간도 있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

이케바나 生け花는 일본의 전통적인 꽃꽂이 예술이다. 이케바나는 단순히 꽃을 화병에 꽂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영원하지 않고 곧 켜 버릴 꽃을 오히려 꺾어 옮으로서 '한동안' 그 꽃의 아름다움의 형태와 빛깔 그리고 향을 재탄생 시키려는 예술가의 성정에서 나오는 싶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케바나는 화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꽃들을 조화롭게 배열하여 '그 꽃들의 최고의 상태가 한동안 살아 있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 자체이다.

살아 있는 꽃인가?

자신을 꺾어 꽃으며 살아 있는가?

돈 주고 산 조화造花인가?

돈 때문에 꺾여 꽃히는 조화造化를 부리며 살고 있는가?

접촉방식

接觸方式

Touch.

참으로 고결하면서 감각적이고,
너무도 고요하면서 감정적이다.

경주하듯 바통 터치를 하고, 그 바통을 건네 주고 받아 내려고
방법들을 알아내고 배우고 습득하며 산다. 술래가 술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걸리기만 하면 터치하는 듯, 법으로
돈으로 헐박과 욕설로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전가하며
산다. 끝까지 싸워 아름다운 승부를 내고 서로 안아 주는
복싱과 달리 시나리오 대로 흥미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프로

레슬러들의 중간 중간 도피성 터치로 자기 파트너를 링으로 나가게 하고 자신은 링 밖으로 나가는 수법으로 계속 그렇게 터치에 터치를 하며 들락이며 산다.

방법과 규칙으로서의 터치는 그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 사회 각 영역과 분야에서 필요한 것임에는 조금의 이견도 없다. 다만 사람 이야기,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매일 생활이라는 유일한 존재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고 싶다.

터치는 자기가 아닌 다른 물체 혹은 사람과 살갗이 닿는 것이다. 계곡에 올라갈 때 꼭 내 손과 다리에 스치는 풀잎들, 그리고 옷으로 덮이지 않은 곳을 건드리는 바람, 내 손등을 살짝 건드리는 누군가의 손길, 마음결에 미세한 전율로 전해지는 새로운 생각들과 관점이 담긴 글들....

사람은 접촉방식으로 살아 보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원하고 있다. 신체는 생명공장과 생명지능과도 같다. 죽는 날까지 사는 동안 알아서 작동하고 기능한다. 관심과 협조 정도 필요할 뿐이다. 그럼에도 신체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터치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내어 주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방식은 아니다.

물론 터치를 하며 산다. 언급했듯이 살아 가는 방법과 규칙으로서의 터치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터치는 늘상 행하며 산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이들은 만질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교감할 수 없고, 보듬을 수 없는 강력한 요새로서의 사회적 터치와 자아를 구축한 인종들이다.

터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랑과 신뢰의 경험에 자신을 열어 보이고 수용하는 연약성과 취약성, 즉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 童心 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요새와 진지를 구축한 이들은 되려 현실과 사람의 실상이라는 링에서 터치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이다. 경주에서 지지 않으려는 강인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터치를 하는 실제로 나약한 사람들이다. 터치가 없으면 술래잡기 놀이 자체가 놀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게임에 몰입하여 술래 되지 않기의 삶을 위한 터치를 하는 기술을 배우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모든 접촉을 오직 사회관계社會關係 그리고 이해관계利害關係를 위해서만 하며 살면 된다. 사람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진심과 애정이 피부에 닿는 접촉이 없으면, 존재적 그리고 근본적 자신은 어느새 소멸 한다는 진실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된다.

Touch.

때로 부주의 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가끔 손톱이 정리 되지 않아 긁히게 하기도 한다. 본의 아니게 강약을 조절 못해서 멍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들을 유발한다고 접촉방식의 삶을 상실하면 안 된다. 아기를 씻긴 물이 더러워졌다고 애까지 던져 버리면 안 되듯이....

접촉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평화와 평온함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그 어떤 일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살결과 마음결이 터치로 만져짐을 받고, 쓰다듬을 받고, 보듬음을 받고, 툭툭 미소 어린 위로를 받는다면.... 평화와 평온은 오직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살결과 마음결이 서로 닿아 있는 결님이 없으면, 또 하나의 실천 불가능한 종교적, 처세적, 영적 방법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생활은 살아 있으니 몸이 활동 한다는 것이다.

살아서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는 내 원래의 싶음과 함께 하는
독특한 일상의 깊이와 감사가 발생하는 생활방식이다.

01 경상방식 輕常方式

02 활심방식 活心方式

03 독생방식 獨生方式

04 역체방식 力體方式

05 재현방식 在現方式

06 거처방식 去處方式

07 일상방식 日常方式

08 계수방식 計壽方式

09 활인방식 活人方式

10 접촉방식 接觸方式

생활방식

生 活 方 式